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5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국교위, '초등1·2체육교과 분리 여부' 2주후재심의...누구를 위한 '즐거운 생활'인가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교육권과 스포츠권을 보장하라!"

"초1·2학년 체육교과 분리, 올해 바로 시행돼야" 한국체육학회-16개학회 12일

'국교위' 결정 앞두고 성명서 발표[오피셜]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외신, "파리는 지속가능성을 주요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

파리가 올림픽을 통해 남기고 싶어하는 것

김연지 ESG경제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아젠다 2020(Olympic Agenda 2020)

D-116, 파리 2024가 기대되는 이유 #지속가능성

서은빈 마리끌레르 editor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나이키 에어 이노베이션 서밋

"확성비용 지불하라" 민망한 올림픽 美유니폼에 비난 봇물

정혜승 뉴시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국교위, '초등12 체육교과 분리 여부' 2주후 재심의.. 누구를 위한 '즐거운 생활'인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안건에 대한 결론을 2주 후로 미뤘다.

코로나19 이후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저체력 학생이 급증하고, 비만율, 우울감 등 신체, 정신 건강지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유소년기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선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칭 '건강한 생활')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에서 이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 문체부는 제안만 할 뿐 체육 교육과정 개정 권한 및 결정권은 오직 국교위의 몫이다.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교육과정 개정 전문위원회(전문위)부터 난항이었다. "2022년 교육개정안을 시행도 안하고 개정하는 건 이전 개발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명분론, "초등 1~2학년 교과 통합 유지"를 주장하는 통합교육학자들의 반대 속에 전문위는 "교과 전담교사 배치, 시설 지원 등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신체활동 분리는 통합교과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야기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내놨다. 이날 본회의에 제출된 전문위 보고서 역시 '부정적' '유보적'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현장에선 체육 교과 분리 주장과 현행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현행 고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체활동 확대의 필요성과 대의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40년간 고수해온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통합교육론자들의 반대가 컸다. '즐거운 생활' 내 체육을 '건강한 생활' 또는 '튼튼한 생활'로 분리시키되 체육에 건강, 영양, 안전 등을 포함시킨 새로운 통합, 융합교과를 제안하는 절충안도 나왔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2주 후인 26일 이 안건을 다시 심의, 의결기로 했다.

이날 국교위가 발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한국교육이 직면한 한계점 2개를 묻는 조항에 '과도한 학벌주의'(1순위 응답, 23.0%)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22.8%)을 꼽았다. 1-2순위를 합쳐 사교육비를 지적한 응답자가 '41.3%', 국민 10명 중 4명에 달했다.

문제는 초등 체육도 이미 사교육 영역이 됐다는 점이다. 한국의 초등 저학년 체육교육은 공교육이 아닌 동네 태권도학원, 체육입시학원이 책임진다.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다양한 종목, 심지어 줄넘기까지 사교육으로 배우고 있는 건 오래 된 현실이다. 체육, 미술, 음악이 통합된 '즐거운 생활'에서 수업선택권은 교사에게 있고, 대다수 교사들이 체육보다 음악, 미술을 선택하는 현실. 그러나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하고, 학부모들은 평생 건강습관을 키우는 체육이 국영수 못지 않게 중요하단 걸 안다.

체육 교육은 통합이 따로 필요치 않다. 아이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지는 법과 이기는 법, 넘어지고 일어나는 법, 규칙, 페어플레이, 인내, 끈기, 배려, 협동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체육은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다 들어 있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체' 체·덕·지 통합교육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 역시 공동체 속에서 배려와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다.

이런 스포츠의 가치를 아는 선진국 중 체육을 타교과와 섞어 '통합'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이 모두 초1부터 체육교과를 독립 운영한다. 호주, 캐나다는 유치원부터 체육 수업을 한다.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운동 참여율은 52.6%로 전연령 최저, 70대 노인(54.3%)보다 적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스포츠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1~2학년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포츠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대한민국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즐거운 생활'인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즐거운가.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교육 수용자인 아이들을 바라보는 백년지대계가 맞는가. 그렇다면 '장고'의 이유가 있을까. '국가의 미래' 아이들의 건강, 체력, 마음력을 키우는 교육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통합교육'의 명분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복잡다단한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은 기본에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general/2024/04/13/YUKLW6BRDYMA6JEQ7IFI2SWQPQ/

"최초 2학년 체육교과 분리, 올해 바로 시행돼야" 한국체육학회-16개 학회 12일 '국교위 결정 앞두고 성명서 발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교육권과 스포츠권을 보장하라!"

한국체육학회와 16개 체육 관련 학회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 이후 기로에 놓인 학생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육교과 독립 등 당면 과제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결정을 촉구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학생들의 신체, 정신 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에서 4·5등급 저체력 학생 비율이 급증하고,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이 30%대까지 치솟고,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에서 최근 12개월새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해봤다는 청소년이 무려 14.3%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시대.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골몰했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유소년기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선 초등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칭 '건강한 생활')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83년 체육, 음악, 미술을 합친 '즐거운생활' 통합교과가 등장한 지 40년만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는 정책도 제시했다.

스포츠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운동습관은 유소년기에 형성된다. 스포츠의 가치를 아는 전세계 선진국들은 '체육'에 진심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들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반영해 초1부터 '체육' '건강과 체육' '운동과 스포츠' 등의 이름으로 체육교과를 운영하고 있고, 호주, 캐나다는 심지어 유치원부터 체육을 정식수업을 한다. 대한민국의 체육시간은 알려진 대로 OECD 최저 수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하루 신체활동 1시간 미만인 11~17세 청소년 비율서도 한국은 필리핀, 캄보디아보다 심각한 94.2%, '압도적' 선두권이다.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운동참여율은 52.6%로 전연령 최저, 70대 노인(54.3%)보다 적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24~2028)',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제3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이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문체는 교육부, 문체부는 제안만 할 뿐 체육 교육과정 개정의 권한 및 결정권은 12일 개최될 국교위에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 일견 당연한 이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교육부가 2월 21일 국교위에 개정 요청을 했지만 본회의 전 전문위원회(전문위) 심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2022년 교육개정안을 시행도 안하고 개정하는 건 이전 개발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명분론, "초등 1·2학년 교과 통합 유지"를 주장하는 통합교육학자들의 이론 속에 전문위는 "안건의 신체활동 강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교과 전담교사 배치, 시설 지원 등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조사, 분석, 점검이 필요하다" "신체활동 분리는 통합교과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이야말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12일 국교위 결정을 앞두고 체육학자, 교육학자들이 나섰다. 한국체육학회와 16개 체육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연대를 결의했다.

한국체육학회는 국교위에 3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첫째,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분리한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교육권과 스포츠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 1·2학년 '건강한 생활'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교육과정 적용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건강한 생활' 등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며,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확대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가 올림픽을 통해 남기고 싶어하는 것

프랑스 파리는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올림픽 경기장과 각종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역대 올림픽 개최지들은 전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을 맞이하려 대대적인 토지 개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예컨대 2004년 그리스는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 전역을 잇는 대대적인 지하철 개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2년 영국의 런던 올림픽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리 벨리(Lea Valley) 지역을 재개발해 대규모 경기장과 각종 시설들을 남겼다.

그러나 파리는 "최대한 덜 짓는 것"을 목표로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2024년의 파리는 기념비적인 건설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주요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파리 올림픽에 쓰여질 올림픽 경기장의 95%는 이미 존재하는 시설이며, 새로 지어질 5%의 경기장과 시설도 대회 후 재활용을 위해 철거에 용이하게 설계됐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 파리 북쪽 생 드니(Saint-Denis) 지역에 지어진 5000석 규모의 올림픽 수영센터는 이러한 파리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건물이다. 이 수영 센터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목재 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거대한 지붕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빼곡하다.

이 수영센터를 설계한 아틀레어(Ateliers) 2/3/4의 파트너 건축가 로레 메리오(Laure Mériaud)는 "우리는 가능한 최소한의 자재만 사용하기를 원했다. 목재를 사용하면 구조적 요소(철근 등 내부 요소)를 숨기기 위해 건설에 사용되는 건식 벽체나 기타 고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파리 북쪽에 지어질 올림픽 선수촌은 8층 미만의 모든 건물이 목재와 유리로 만들어지고 모든 에너지가 히트펌프와 재생 에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구역이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수촌에는 에어컨과 같은 인공적인 냉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지열을 피하기 위해 지하수 냉각시스템을 설치하고, 태양열을 정면으로 받지 않는 건축 설계를 했다. 선수촌 주변에 지어질 8000석 규모의 체육관은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외관이 꾸며진다.

또한 이번 올림픽을 위해 건설된 아디다스 아레나(Adidas Arena) 등 두 곳의 경기장은 1만 1000석에 달하는 관중석을 모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 이 관중석을 만들기 위해 100톤 가량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쓰였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 시는 이러한 '수리와 개선' 접근 방식을 통해 프랑스 건설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목재 또는 기타 생물 소재를 50%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프랑스 정부는 목재 및 기타 생물 소재를 사용하는 건축 프로젝트에 약 2억 유로(약 2884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산업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재생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는 다른 EU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더라도, 친환경 건물 분야에서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올림픽 개최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툴루즈 대학교의 환경 전문가 루크 플루아삭(Luc Floissac)은 블룸버그에 "프랑스의 목재 건축 산업은 오스트리아나 독일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건물에 밀짚과 같은 바이오 기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 따르면, EU의 건물은 에너지 소비의 40%,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차지한다. EC는 지난 2021년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핏포 55(Fit for 55)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입법 제안을 포함한 바 있다.

최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통과한 '그린 건물법'에는 2030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공 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신축 건물은 2028년부터 배출량이 없는 건물이어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2040년까지 난방 및 냉방에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난방 시스템의 탈탄소화 조치를 계획하고 그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D-116, 파리 2024가 기대되는 이유 #지속가능성

역사상 가장 지속 가능한 올림픽으로 꼽히는 파리 2024!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향한 파리 2024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황금 기회’를 잡은 파리

‘지속 가능성’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부터 파리와 함께했습니다. 2024 하계 올림픽 개최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아젠다 2020(Olympic Agenda 2020)을 기반으로 선정됐습니다. 올림픽의 미래를 제시하는 올림픽 아젠다 2020의 세 가지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입니다. 아젠다에서 개최 도시를 평가하는 약 8개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고, 개최 도시의 역할로는 ‘실현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명시했죠.

약 2년 동안의 심사를 통과해 파리는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되었고, 파리 대표단은 2017년 7월 11일에 진행된 후보 도시 설명회에서 올림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서 돋보인 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활용해 95%의 경기장을 준비하고, 모든 경기장이 대중 교통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죠.

결국 파리는 ‘황금 기회’를 잡았습니다. 2017년 9월 13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된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2024, 2028 하계 올림픽 개최지가 각각 파리와 로스 앤젤레스로 선정됐습니다. 두 개의 올림픽의 개최지를 동시 발표한 것은 100년만의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개최지 선정 이유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장인 토마스 바흐(Thomas Bac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받아들였고, 특히 기록적인 수의 기존 및 임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던 차원의 것으로 올림픽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올림픽을 더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강조한 올림픽 아젠다 2020을 완전히 받아들인 두 후보가 나타난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도 놓칠 수 없는 ‘황금 기회’였던 것이죠.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향한 발걸음

이렇게 황금 기회를 잡은 파리 2024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부터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기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고 상쇄시켰던 과거 올림픽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에 따라 파리 2024는 ARO접근법(ARO approach)에 2가지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Avoid(방지), Reduce(절감), Offset(상쇄)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딴 ARO 접근법에 Anticipate(예상) 단계와 Mobilise(총동원) 단계를 더했습니다. 파리 2024는 5가지 단계에 따라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계속

1단계(예상): 파리 협정에 맞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파리는 2015년 유엔(UN) 기후변화협약인 파리 협정이 체결된 도시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파리 2024는 파리 협정에 맞추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 협정에 따라 파리 조직 위원회는 하계 올림픽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약 350만 톤을 시작점으로 두고, 파리 2024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절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단계(방지): 기존 및 임시 시설 활용

기후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파리 2024는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합니다. 파리 대표단이 후보 도시 설명회에서 강조했듯 약 95%의 경기장이 기존 및 임시 시설로 구성됩니다. 에펠탑에서 열리는 비치 발리볼 경기와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는 승마 경기가 대표적이죠. 또, 올림픽을 위해 새로 짓는 건물은 파리 2024가 끝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뿐입니다.

3단계(절감): 지속 가능한 식사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약 1,300만 끼의 식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파리 2024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식사를 제안했고, 이를 위해 크게 6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중 식물성 제품과 지역 농산물 사용, 플라스틱 사용 절감이 대표적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모든 식사의 80%는 지역 제철 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며, 최소 50%에서 최대 60%까지 동물성 제품을 줄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4단계(상쇄): 기후 회복 프로젝트 후원

현실적으로 모든 탄소 배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죠. 환경에 미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파리 2024는 기후 회복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합니다. 프로젝트는 모든 대륙권의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계획되는데요. 숲과 바다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파리 2024는 올림픽 시작에 앞서 2021년에 첫 후원을 진행했습니다.

5단계(총동원): '클라이메트 코치 포 이벤트' 개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리 2024는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할 때 개별적으로도 탄소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클라이메트 코치 포 이벤트(Climat Coach for Events)'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포츠 게임의 주최자가 케이터링, 스포츠 장비와 같이 이벤트 정보를 입력하면 클라이메트 코치가 해당 이벤트의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가장 큰 탄소 배출원을 분석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약 100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중 주최자가 탄소 절감을 위해 가장 우선시하고 싶은 해결책을 선택하면 됩니다. 식물성 제품 위주의 식사 제공,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선택과 같은 방안을 채택한 파리 2024처럼 말이죠.

파리 2024는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라고 평가 받는 만큼 파리 2024의 여러 행보는 주목을 받고 있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노력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기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확실히 비용 지불하라" 민망한 올림픽 美유니폼에 비난 봇물

올해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이 착용할 경기복이 공개된 가운데 여자 선수 유니폼이 '성차별적'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나이키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나이키 에어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미국 육상 대표팀의 경기복 일부를 공개했다. 남성용 경기복은 민소매 상의와 허벅지 중간 길이의 바지로, 무난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성용 경기복이 '지나치게 노출이 많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경기복은 수영복 형식의 보디수트로, 골반 부분이 깊게 파였다. NYT는 "마치 1980년대 레오타드의 운동복 버전 같다"고 평가했다.

디자인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선 비난이 터져 나왔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누리꾼들은 "어떤 남성이 여성 경기복을 디자인한 것이냐", "비키니 확성(음모 제거) 비용은 미 육상연맹이 지불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나이키 측은 "해당 경기복은 나이키가 선수들에게 제공할 선택지 중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남녀를 통틀어 50여 개의 경기복이 있고, 특정 종목에 맞춰 조정된 12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전했다.

여성 선수들은 반바지와 짧은 상의, 민소매 상의, 바지가 달린 보디수트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파리 서밋에서 모든 경기복 디자인이 공개된 것은 아니며,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 미디어 서밋에서 더 많은 디자인이 공개될 예정이다.

NYT는 "그러나 나이키가 놓친 것이 있다"며 "반바지와 민소매가 아닌 디자인을 선포한 경기복으로 채택함으로써, 여성 선수를 남성 선수와 다른 방식으로 비추는 스포츠계의 오랜 불평등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육상 챔피언인 로렌 플레시먼은 "나이키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이 경기복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라며 "이런 인식은 자기 신체에 대해 고민하는 발달기 여성 운동선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초등생들 상습 폭행한 학교 체육부 코치 집행유예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3_0002698396&cID=10814&pID=10800

양주시, 신천·백석 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 완료

<https://www.fnnews.com/news/202404151551035807>

대구·경북 첫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센터' 개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9994&ref=A>

전남체육회, 양대체전 종목별 경기장 현장점검 실시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19095?ref=naver>

대전시체육회 주최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 풋살대회 성료

<https://www.news1.kr/articles/5384965>

4월의 봄, 거제 구석구석 체육 활동으로 활력 가득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4150268>

"도민화합의 축제장" 제57회 제주도민체육대회 19일 개막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88300056?input=1195m>

아산시 전국 단위 체육대회로 '이순신 축제' 분위기 고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41510330227494>

제천국민체육센터 내달 1일 개관...25년만의 새 수영장

<https://www.news1.kr/articles/538371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